

생동감 넘치는 조직의 힘으로, 빈곤과 차별의 벽을 넘는다



부산반빈곤센터소식지

최비름



74
2025. 8.

공영장례
조문단에
불여진
많은 이름들

여는 시: 담쟁이 투혼
'절망 그만큼의 희망'을 갖고, '천천히 즐겁게 함께' 갑시다!
서로배움터 3강: 민중운동으로서의 장애인권운동 | 회원탐방: 손석주
장손, 몸에 스민 기득권의 포기, 그 가능성과 불가능성
특강: 마르크스의 '자본', 더 좋은 세상은 어떻게 가능할까
모두의 1층, 모두의 힘으로! | 전라도 음식의 재미
* 여름휴가로 인하여 8월 호 발송이 늦어졌습니다. 너른 양해 바랍니다.

01 여는 시

담쟁이 투혼 | 해방글터 배순덕

02 여는 글

‘절망 그만큼의 희망’을 갖고

‘천천히 즐겁게 함께’ 갑시다! | 최고운

03 표지이야기

부산시민 공영장례 조문단에 붙여진

많은 이름들 | 임기현

05 활동보고

서로배움터 3강 민중운동으로서의

장애인권운동 | 김원석

09 사진으로 보는

* 표지 사진은 7월 24일, 부산시민 공영장례 조문단
(5기) 수료식에 참석한 참석자들의 모습입니다.

* 아래 사진은 하동 정금차밭의 모습입니다.

11 회원탐방

손석주 | 편집팀

17 회원기고

장손, 몸에 스민 기득권의 포기,

그 가능성과 불가능성 | 김남영

특강: 마르크스의 ‘자본’, 더 좋은 세상은

어떻게 가능할까 | 왕승민

모두의 1층, 모두의 힘으로! | 이주언

24 맛집탐방

전라도 음식의 재미 | 김민수

26 광고, 회계 및 활동보고



담쟁이 투혼

- 담쟁이를 닮은 태경. 진희에게

해방글터 배순덕

바람결에 날려 콘크리트 틈 사이
두려움 이겨내며 뿌리 내린
여리고 여린 담쟁이
절망의 세상 딛고 가는
푸른 사랑
모든 생명
타 죽거나 시들어 가는
살인 같은 폭염에도
콘크리트 벽 넘어 선
빛나는 희망
무모하다고
할 수 없다고
비웃는 절망에도
담쟁이, 믿고 의지하며
거센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고
뿌리를 뻗는다
눈물은 사랑이 되고
투지는 희망이 되어
어느새 벽을 넘어가는 담쟁이

‘절망 그만큼의 희망’을 갖고, ‘천천히 즐겁게 함께’ 갑시다!

더디게 변하는 것 같지만 조금씩 익어갑니다. 덩다, 덩다 해도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집 앞의 석류가 커가는 속도를 보면 ‘가을이 다가왔구나’ 싶습니다.

도대체 언제 끝날지 기약 없던 투쟁들도 약간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소식지를 편집하고 있던 중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에 이어 8월 29일, 옹티칼 불탄 공장 위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박정혜 수석부지회장도 600일을 짝 채우고 정부·여당의 약속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한 국옵티칼하이테크는 서울 당시 50년 토지 무상 임대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2019~2020년 직원 500명 중 400여 명을 구조조정했고, 2022년 10월, 구미 공장에 불이 나자 노동자는 남겨두고 생산 물량만 경기 평택의 자회사로 옮겼습니다. 이전 노동자들의 고용승계가 우선임에도 신규채용을 하는 만행으로 또 한 번 사회에 분노를 일으켰죠. 정부·여당은 박정혜의 부름에 뒤늦게 응답하여 당정노 TF를 꾸리고 ‘먹튀방지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켜볼 일입니다.

부산시민 공영장례 조문단 활동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넓어지지만, 철마다 바뀌는 담당 공무원들은 공영장례에 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발령 때마다 실수가 생기고 관리·감독이 부실해져 같은 민원을 반복하게 해 조문단원들이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애도할, 애도 받을 권리’에 대해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바로 아래 표지이야기에서 살펴봐 주십시오.

회원교육 ‘서로배움터’는 6월에도 이어졌습니다. 장애인권운동의 역사와 ‘장애는 무엇이고, 장애감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김원석 위원이 강연을 했는데 듣지 못한 분들에게도 꼭 전달하고 싶어서 요약하여 소식지에 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6월 20일, 강신준 교수님의 특강도 왕승민 노무사님이 잘 요약해 주셨으니 일독을 권합니다. 감동을 주는 손석주 님의 인터뷰, 늘 글로써 영화와 책을 소개해 주시는 김남영 님의 ‘장손’, 저렴하고 맛깔난 노포를 소개해 주는 김민수 님의 맛집탐방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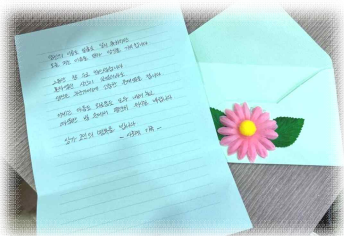
이번 호에는 특별히 이주언 변호사님이 ‘모두의 1층’ 프로젝트와 기획소송 결과를 다뤄주셨습니다. 이 소송도 무려 6년이란 시간이 걸렸고, 장애인의 접근권·이동권 투쟁까지 다 따져보면 20년 이상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단시간에 이뤄지는 것은 많지 않고, 작은 변화든 큰 변화든 일관된 목표 하에 꾸준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 그만큼의 희망’을 갖고 ‘천천히 즐겁게 함께’ 갑시다! <최고운 대표>

*** 이번 호는 개인 사정으로 김원석 편집팀장을 대신하여 최고운 대표가 여는 글을 썼습니다.**

부산시민 공영장례 조문단에 붙여진 많은 이름들

공영장례 조문단 활동하면서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삶의 의미를 하나둘씩 새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연결된 하나의 인생 궤적이라고 할 수 있으니 죽음을 통해서 삶을 배운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삶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싶다면 죽음에 대해서 더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난 7월 3일부터 7월 24일까지 4회차에 걸쳐서 조문단 양성과정(5기)이 진행되었고 18명의 수료생이 배출되었습니다. 느낌으로는 오래전 일 같은데 겨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5기 수료생의 조문단 활약상은 놀랍습니다. 1강을 마치자마자 바로 조문 활동에 뛰어들기 시작하더니 엄청난 열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조문단 활동이 장례식장 빈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영락공원의 화장, 산골 및 봉안 과정까지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의 마지막 존엄성을 시민의 권리로 지켜내는 일은 대단히 고단한 일이며 섬세하게 대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은 쉽게 변하는 법이 아니니 강한 인내심마저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 조문단이 가야 할 길은 아이러니하게도 즐거운 소풍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문단 양성과정 5기를 기점으로 조문단 양성과정을 거친 부산시민이 약 100명이 되었습니다. 물론 수료생 모든 분들이 조문단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공영장례가 하나의 지역사회운동으로서 시민이면 누구라도 당당히 누릴 수 있는 기본권(사회권)의 하나라는 것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제도상의 여건(조문 시간 겨우 6시간만 가능)으로는 어느 시간에 언제라도 자유롭고 안전하게 조문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조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여건이지만 각 기수별 일부 시민들은 심지어 직장에서 점심시간 또는 연차를 이용해서 조문단 활동에 함께 참여하면서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조문단원들과 ‘함께 애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그렇지만 발령 시기에 새로 부임한 구청 담당자는 공영장례 업무에 미숙해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때마다 공영장례의 취지와 장례업체 관리 시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하는지 우리가 현장에서 체득한 ‘살아있는 지식’은 공유해 주지만 어떤 공무원은 감사하다고 하고 어떤 공무원은 들은 체만 합니다. 이럴 때마다 ‘언젠가는 변하겠지’라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의지하고 마음을 비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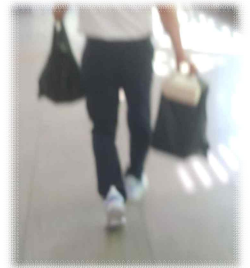
그동안 조문단 활동 내용에도, 소식지에도 담지 못할 정도로 별의별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종교가 전혀 다르지만 빈소에서 고인의 삶을 생각하는 것은 다름이 없습니다. 단지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사실에 집중하면서 깊은 공감으로 가톨릭 수녀님과 불교 신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애도하면서 결국 종착지는 살아있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기존의 애도 카드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만든 예쁜 애도 카드에 손글씨로 정성껏 편지 글을 작성하고 맨 마지막에 글쓴이로 ‘사회적 가족’이라는 문구를 남기기도 합니다. 시민의식이 움트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는 애도하는 방식도 다양해져서 고인의 관을 덮는 ‘관보’에 애도의 문장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전에 시도하지 못한 방식인데 한 장례업체의 협력으로 가능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영장례를 주제로 하는 ‘단편 영화제작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 중인데 그 참여 열기가 대단합니다. 영화에 문외한인 저로서는 너무 놀랍습니다. 영화제작에 참여하는 조문단원 중 13명이 영화 시놉시스 피칭에 참여했고 이 중에서 3명이 자체 투표로 당선되어서 현재 시나리오 초고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조문단 1기 출신이며 우리 센터 회원이신 이연승 감독님의 덕분에 영화제작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조문단 활동이 대안적인 공영장례 문화운동으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조문단 활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일뿐만 아니라 여전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안타까운 현장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인의 시신을 화장하고 수골하여 분쇄한 후 한지 종이에 한약재처럼 곱게 싸서 목함에 넣고 산골을 합니다. 우리 조문단이 함께 할 때는 장례업체-영락공원에서는 유골함 판매업자-가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가 없을 때 검은색 비닐봉지에 종이에 싸 골분을 넣어서 음식물 쓰레기마냥 달랑달랑 들고 가는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가난하고 가족이 없는(또는 거부, 기피된) 무연고자는 마지막에 이런 꼴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참담한 현실입니다. 지금은 우리 조문단의 현장 모니터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우리가 없으면 버젓이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각 구청에 담당 공무원을 만나러 다니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혀를 차면서 놀랍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 잊혀지지 않을 권리를 지키려는 사람들,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 사회적 가족이 되기 위해 준비된 사람들, 옆에 함께 있고 싶은 사람들, 배제되었던 한 사람을 우리가 살고 있는 평범한 공간과 시간으로 불러내어 ‘시민’으로서 세상에 알리는 사람들”

제가 지금까지 우리 조문단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차라리 남이 낫다는 말을 증명해 낸 사람들’. 우리 조문단은 가족이라는 천륜의 관계를 넘어 시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사회적 공동체를 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임기현 활동가>

서로배움터 3강 민중운동으로서의 장애인권운동

6월 5일, 공간달품에서 있었던 김원석 위원의 강의를 요약해서 전달합니다.

장애인권운동의 시작은 1980년대 민주화 흐름과 함께 전개되었습니다. 당시 전두환 정부가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였지만, 이는 독재정권의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시키려는 정치적 의도에 불과했습니다. 법 조항 또한 당사자의 요구와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선심적·시혜적 성격으로 점철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의 현실을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서울올림픽(패럴림픽)을 거치며 한국의 장애인권 현실과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이동권·생존권 보장 투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서울 거리의 턱을 없애 달라”라는 외침을 남기고 이동권 운동을 발아시킨 김순석 장애해방 열사, 노동권조차 보장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노점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던 열사들의 희생은 오늘날 장애인권운동의 역사가 태동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2001년 서울 오이도역에서 당시 지하철을 타기 위해 반드시 이용해야 했던 휠체어 리프트가 추락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동권 투쟁이 본격화되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국 지하철 역사에는 엘리베이터와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고, 시내버스 노선에는 저상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부산에서 흔히 ‘두리발’로 불리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활동 지원 제도는 2006년부터 투쟁을 시작해서 2007년에 시범 사업으로 시작이 되어서 2008년도에는 본격적인 정부 사업으로 시작했는데요. 수많은 장애인 당사자 분들이 서울의 대교를 점거하고 직접 바닥을 기면서 만들어냈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와상으로 생활하면서 자가호흡도 어려워 호흡기를 사용해야하고, 석션도 필요해서 매일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데도 월 210시간밖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판정사례만 보아도 얼마나 불합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면서 만 65세가 넘으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에서 노인 장기요양서비스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전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시간으로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데, 물론 지금은 제도가 조금 바뀌어서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현실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나다.

장애인차별금지법 2001년부터 도보순례와 각종 투쟁을 이어와서 2002년도에 본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죠. 다만 실효성 있게 권리구제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차별행위에 대해 제재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죠.

한국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2008년에 비준했지만 당시 선택의정서 비준을 유보했었고, 장애계

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2022년에 비로소 비준을 합니다. 그 내용은 장애인의 권리 침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변화일 수도 있지만 국내법과 완전히 조화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미약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서 5년 간 광화문역 지하보도에서 농성을 했었죠. 2017년도에 정부와 약속을 하고 종료했지만 온전한 폐지가 되진 못했습니다. 심한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축소되어 사실상 여전히 등급제가 존재하고 있고 부양의무제는 완화해 왔었지만 의료급여 정률제¹⁾ 같은 개악의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탈시설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타의에 의하여 거주하는 분들이 지역사회로 나오게 하는 운동인데요. 이 운동의 시초에는 96년 에바다 투쟁²⁾이 있었어요. ‘에바다 농아원’이라는 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학대, 폭력, 감금 그리고 강제 노동 이 있었고 장애인 조직에서 이를 밝혀내고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자기결정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더 많은 사례들이 드러났고, 지금도 탈시설 운동은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다양한 유형별로 자립생활 운동도 이어지고 있죠. ‘피플 퍼스트’라는 발달장애인 그룹도 만들어졌고, ‘희망바라기’ 같은 정신장애인 인권운동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인권운동이 더욱 다양한 장애인 그룹들을 이끌어내고 조직해서 확장시켜 나가야 하지 않는가 이야기하면서 장애인 인권운동의 역사 부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장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장애라는 한자는 ‘막을 장, 거리길 애’인데요. 장애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실까요? 아마 전형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으로 손상이나 결함 또는 발달의 지연 이런 것을 가진 분들을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그분들을 왜 장애인이라고 부를까요? 장애는 어떤 것들이 발생시키고 유발하는 것일까요?

혹시 ‘장애감’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데 왜 나만 못하게 해 놓았을까 하는 부분을 일차원적으로 장애감이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인도의 턱이 높아서,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이 계단만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장애감을 주지요. 그럼 여성으로서 혹은 성소수자로서, 노동자로서 나의 권리를 침해받고 분리되고 배제될 때는 장애감을 느끼지 않나요?

지금까지 장애당사자를 얘기할 때 단지 장애를 가진 사람만을 얘기했었는데요. 저는 ‘장애감’의

1)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정액에서 진료비의 일정 비율로 전환하려는 시도.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우려로 시민사회의 반발이 있었고 현재는 중단된 상태.

2) 평택에 위치했던 청각장애인 특수학교이며, 생활시설인 ‘에바다 농아원’이 함께 운영됐다. 정부 지원금과 후원금 착복, 아동들의 강제노동, 폭력과 학대 등 비리의 온상이었으나 노들야학 등 인권단체들의 10년 투쟁으로 정상화되었다(비리·전황·유착 ‘에바다’...장애학생·교사들 10년 싸웠다, 한겨레, 2024-12-02).

관점에서 접근하면 장애당사자는 더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운동 안에서도 이 당사자성에 대한 논의는 치열했습니다. 지금껏 장애운동에 헌신한 비장애인 활동가도 많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당사자가 아닌가’ 고민이 되었죠. 저는 당사자성이란 건, 단지 손상의 유무로 판단할 건 아니고 얼마나 공감할 수 있고 삶을 공유할 수 있는가에 달렸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그룹인데 그 청소년이 성인이 되면 청소년 운동에서 떠나야 하나요? 당사자주의 자체는 운동을 이끌어 왔고 더 견고하게 만들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앞으로 운동을 확장하고 연대의 범위를 넓혀감에 있어서는 또다른 장벽이 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계속 이어가자면, ‘장애 인권’은 장애인들의 권리일까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의 권리’라고 해석하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어쨌든 장애인이 되어야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느낌인데요. 장애 인권은 장애와 인권을 합친 말이잖아요. 저는 장애인들만의 따로 떨어진 ‘특별한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탈시설의 권리도 ‘거주 이전의 자유’잖아요. 교육권, 이동권, 노동권, 문화 향유권, 정보 접근권 모두 특별하다기보다는 보편적인 권리죠. ‘장애가 있으니까 보장해 달라’가 아닌 거죠.

저도 ‘장애갑’이라는 개념과 장애운동을 더 폭넓게 민중운동으로서 확산시키기 위한 것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의견을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 정립되었다고도 하기 힘들고요. 다만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같이 토론해 보고 싶었습니다.

의견1 결국 보편적인 권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평등한 권리를 위해서 함께 싸워나가는 것인데, 흔히 ‘저 사람이 힘들니까, 우리가 도와줘야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많거든요. ‘똑같은 시민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2 원래 장애인이라는 개념은 행정적 용어예요. 자원은 한정적이고 그것을 행정적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특정 용어가 필요해서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사람들은 늘 생각하면 장애를 사람에게서 찾아요. 주로 손상에 관한 부분이죠. 장애는 환경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피터팬을 장애인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어른이 될 수 없어서 성인으로서 권리들을 누리지 못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장애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피터팬이 나이가 들지 않고 키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성인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이 사회의 제도가 장애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회적 환경도 다 장애감에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장애 운동이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단순히 특정 당사자 그룹의 인권 문제가 아니라 운동의 범위를 좀 더 넓히고 당사자주의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본인이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의견3 ‘당신은 장애인입니까?’라는 질문을 ‘당신은 빈곤에 처해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바꿔도 거의 통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 내가 노동을 할 수 없을 나이가 되었을 때 안정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에 살고 있는가? 결국은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예견된 미래잖아요.

의견4 당사자주의에 관해서는 또 다른 의견이 있어요. 복지 정책도 대부분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정했죠. 그래서 자립생활 이념이 생겨나고 우리가 복지 소비자인데 소비자가 주체가 되어야지 했던 게 당사자주의의 시작이었어요. 지금은 장애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정책이라든지 사회 변혁을 위해 함께하는 활동, 그게 발전된 당사자주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5 저는 장애인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장애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왔는데 어떤 분이 저를 모욕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상처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때 제일 먼저 ‘난 장애인이 아닌데...’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후에 ‘장애가 뭘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장애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향할 점일까 오히려 그냥 다 평범하게 누구나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요즘 기사에서 탈시설 운동에 관한 논쟁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시설에 대한 의견이나 그리고 그 반대에 대한 의견도 조금 말씀해 주신다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장애감은, ‘너도 장애인, 나도 장애인’ 이런 뜻은 아니고요. 사회에서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장애감, 다시 말해 단순 장애유형을 늘리거나 장애인구를 늘리는 식의 양적 확장이 아니라 차별적이고 손상과 결합으로 낙인 찍혀있는 기존 개념을 깨뜨리기 위해 사회학적으로 장애라는 개념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탈시설에 관한 논쟁은 그 토론을 한번 떠올려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혹시 이준석 씨와 박경석 대표의 토론을 기억하시나요.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무분별하게 지역사회에 데리고 나와서 대책조차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게 이준석 씨의 주된 주장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마치 시설이 좋아서 그곳에서 충분한 케어를 받으며 살고 있는데 억지로 끌어낸다는 듯이 호도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현재 시설 거주인들 중 자의적으로 그곳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냐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탈시설 논쟁의 핵심은 ‘그들은 어디에 살고 싶은가’일 것입니다. 우물 안에만 살던 개구리는 우물 안이 우물이 세상의 전부일 수밖에 없죠. 그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살 것인지, 우물을 벗어나 바깥 세상에서 살 것인지는 그 개구리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줘야겠죠. 그렇기에 지역사회가 충분히 그분들의 권리와 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 : 최고운>

부산시민 공영장려 조문단

7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총 4주간 5기 양성과정을 진행했습니다!
18명이 최종 수료하였고 현재 활발히 조문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6기는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 시작하지만, 오른쪽 QR에 연락처 남겨주시면
모집 시에 연락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수료식을 겸해서 1~4기 선배들에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미니토크쇼를 진행해 봤는데요, 반응이 좋았습니다!~

2026 공영장려 조문단
양성과정 연락받기 ▼



사진: 이연승 님



1~4기 미니토크쇼



조문단 후속모임



▲ 6월 24일, 4기 후속모임
6월 19일에는 1~3기 후속모임이 있었어요!



▲ 7월 22일, 1~4기가 처음으로 다같이 만나는
자리였어요! 단편영화 제작 설명회를 했습니다!

임상철 동지 4주기



▲ 7월 6일, 부산추모공원에서 고 임상철 동지 4주기 추모제

영화숙 재생원 협의회



▲ 6월 10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국가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
요즘 기현님이 영화숙협의회 회원들께 공영장려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운영위 & 서로배움터 (회원교육)

6월 23일, 25-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텔레그램 화상채팅으로 상반기 서로배움터를
평가하고, 재정현황을 보고하며 대책을 세우고
하반기 계획을 점검하는 등 굵직한 안건들을
논의했습니다. 3강은 6월 5일, 김원석 위원이
'민중운동으로서의 장애인권운동'에 대해서 진행해 주셨고요. 4강은
6월 13일, 대선 이후 우리 활동의 방향성을 함께 논의해 보는 토론회
로 이어졌습니다. 6월 5일 서로배움터 3강 ▶



#서로 배우고_모두 성장한다



6월 13일 정세토론회로 서로배움터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 20일 사회과학 세미나에서 읽고 있는 책의 저자, 강신준 교수님을 초청하여 강의를 들었습니다!

서로배움터

3차 정세토론회&저자특강

서로배움터는
회원교육의 새로운 이름!

4강은 사회과학세미나의
차례였는데요~
정세토론회로 진행!



각자 싸온 음식들로
뒷풀이가 풍성!~



말벌동지 해민 님의
계명 이후 투쟁과 대선
평가를 들어보았습니다~

6월 17일, 7월 29일 서로배움실천팀

7월 4일, 25일 사회과학세미나



서로배움실천팀은 월에 한번, '시민참여실천연구'를 함께 읽고 있어요~
사회과학세미나는 '마르크스가 보낸 편지'를 3주에 한번 만나 함께 읽고 있어요~

#현장에서 힘을 모으고 연결한다

서면시장_투쟁_1586일
세종호텔_고진수_202일

(9월 2일 기준)



사진: 정남준

가능한 매주 수요일은 서면시장에 연대하고 있고, 문화제 때는 길위에서 노래를 하기도 합니다.

6월 19일, 드디어 거제통영고성조선 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이 고공농성을 종료하고 내려왔고 8월 20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서진해고자들의 복직이 타결됐습니다. 박정혜 동지도 8월 29일 드디어 내려왔죠. 세종호텔도 서면시장도 이수기업도 해결되길!



7월 31일, 유틸칼 투쟁문화제 ▶

손 석 주

7월 31일 오후 2시, 달품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963년생이고요. 영화속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태어나기는 부산에서 태어났지만 네 살 때 양산으로 갔으니 양산이 고향이나 다름바 없게 느껴집니다. 가정이 좀 원만치 못해 갖고 영화속재생원을 접하게 됐고, 배움의 길이 끊겨 버리고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영화속재생원, 서울아동보호소, 대구희망원 등 시설들을 드나들면서도 지금 생각하면 어린 시절에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게 내 하나의 생존 본능이랄까. 혼자서 먹고는 살아야되겠다 싶어서 구두통을 메고 학교로 찾아갔어요. 선생님들 구두 닦으러 학교로 올라갔던 게 내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가 됐어요. 그게 내 나이 열 살에서 열 다섯 살 그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구두 닦으신 것도 꽤 오랫동안 하신 거죠. 몇 년동안 하신 건가요?

반평생의 내 직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구두통을 메고 거리에 다니면 형들한테 돈도 뺏기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고 무서워서 생각을 하다가 학교를 찾아간 거죠. 내가 찾아간 데가 거제리에 있는 계성여상 그리고 부산대학교 사대부고. 그때는 어릴 때니까 학교에서 구두를 닦다가 형님, 누나들하고 친해진 거예요. 쉬는 시간에 매점 빵도 사주고 밥도 먹여주고 두 학교의 마스크도 같았죠. 소풍도 따라가고 그랬으니까요.

정돌이라는 영화랑 비슷하네요.

네, 한번씩 형들이 자기 집에 데리고 가고 재우고 목욕도 시키고... 그 어린 시절을 버텨 왔는데 또 밖으로 나와서 시설에 끌려가게 됩니다. 방학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밖으로 나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설로 끌려가고 그런 게 반복이 됐어요. 대학교는 방학이라도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올라가서 캠퍼스도 누비고 그랬죠. 왜 이 얘기를 하나면 이때 제가 이 형님, 누나들 안 만났으면 제 인생이 좀 다르게 변하지 않았을까?

어차피 이 세상에 나 혼자고 누구 하나 의지할 데 없으니 결국은 살자고 공격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피해자들도 그래요. 근데 그분들에게 여태 못 받은 사랑과 보살핌을 받다 보니 사람에 대한 믿음이나 사람 간의 소통하는 법을 그 시절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인생의 어떤 한 장면이 참 중요한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구두닦이가 천직인지 돈을 좀 벌었어요. 근데 꼭 다른 일을 하면 다 까먹는 거예요.

다른 일도 해보셨어요?

90년도 초중반에 서울남부터미널 근처에 진로그룹이 있었거든요. 그 건물 전체를 다 맡아 서 구두닦이

를 했는데 두 명의 직원을 쓰고도 내 인건비도 어느 정도 벌 정도였죠. 그러다보니 돈을 좀 모았어요. 그 돈을 가지고 친구하고 동대문에서 원단 대리점을 인수해서 하다가 8개월 만에 다 말아 먹었죠. 고향 친구였는데 ‘니가 평생 구두만 닦을래? 신분상승 좀 하자’면서 바람을 넣었죠. 친구 말만 믿었고 장사를 잘 몰랐던 거예요. 대리점에서 원단을 받아서 가공하는 데 납품을 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개가 원단을 실어서 나가더니 다 팔아먹고... 불량어음을 받기도 하고. 결국 돈을 다 까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나중에 친구는 사기죄로 형을 살았지만 어쨌든 내 인생이 망가졌고, 가게 정리 하면서 채권자들 다 불러 놓고 되는데로 그렇게 정리를 해 버렸지요. 다 해주고 나니까 내 주머니에 돈 4만 6천 원이 있었어요. 나하고 형동생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실 내가 줄 돈도 일부밖에 못 줬지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니 그냥 준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사람이었네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내가 경포대 옆에 방을 일주일 얻어놓고 고민을 했어요. 답답하니 바닷가 가서 이 생각, 저 생각... 답은 없지요. 생을 포기하려고 간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하러 간 거예요. 4일 째 저녁에 배가 너무 고팠는데 그 순간에 새로 살려는 의지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배를 채우고 그 다음 날 바로 부산에 갔어요. 남은 돈으로 여인숙 방을 구하고, 일자리를 알아봤죠. 그래서 다시 일당을 받으면서 구두를 다시 닦았고요. 같이 일하던 형님이 욕심도 없고 매상을 5대 5로 하자고 해놓고도 몇 만원씩 더 얹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줘서 돈을 좀 모아서 경남 산청으로 갔어요. 너무 좋았었고 15년을 살았어요.

서울에서부터 시작된 ‘일심회’라는 봉사모임이 있었어요. 소년소녀 가장돕기라든지, 그런 걸 중단하고 있는 상태에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주에 가서 봉사모임을 다시 해볼까 했는데 잘 안됐고, 나 혼자라도 하자는 생각에 구두 하나 닦을 때마다 100원, 500원 이렇게 모았고 선불 쿠폰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돈이 조금 모였어요. 그게 좀 알려져서 MBC에서 취재도 해 가고 했죠.

그때부터 방송 타셨네요.

촌에서 유명인사가 돼 버렸는데 나한테 엄청 득이 됐던 거지요. 장사가 잘 됐고 근데 꼭 다른 일을 손대면 안되더라고요. 또 다른 사업을 좀 하다가 싹 말아먹고, 다시 구두닦이를 하려고 해도 이제 운동화를 많이 신고 하다보니 사양길로 접어들었죠. 양산에 와서는 중국집 배달일을 7년 정도 했는데 18년도에 사고가 나서 여섯 군데가 부러졌습니다. 사실 내 과실이 100%였는데 다행히 산재처리가 됐어요. 1년 3개월 정도 재활을 했는데 몸이 좀 망가지더라고요. 그전에는 한 달에 한 두 번씩 산에도 갔어요. 사고 후에는 이제 못 가겠더라고요. 지금은 내 인생의 제 3의 전환기라고 봐요.

과거에 있었던 시설 관련한 일들은 제가 생각을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잊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쉬는 날에, TV를 탁 트니 뉴스가 탁 나오는데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얘기였던 말이죠. 유심히 들어봤어요. ‘다른 쪽에는 피해자들이 없다고 생각하나?’ 싶은 거예요. 다른 곳에 억울한 일들은 다 저렇게 언론에 보도를 해주는데 왜 우리 얘기도 어느 누구도 한마디도 안해주는가, 억울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양산시청 기자실에 무작정 찾아가 봤죠. 국제신문의 김성룡 기자가 있더라고요. 여차저차해서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해서 처음으로 내 얘기를 꺼냈던 거죠.

그 이전에는 아무한테도 안 했던 얘기죠.

그렇죠.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후로 신심범 기자가 취재를 했죠. 23년 11월에 첫 기사가 나왔죠. 114에서 전화번호 찾아서 인권 단체에도 찾아가고 했는데 별 진전은 없었고, 어쨌든 기사가 나왔으니까 이제 됐다고 생각하고 말았죠.

알리고 싶었는데 기사가 나왔으니까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을 하신 거네요.

그리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기자가 전화가 와서 “기사를 보고 다른 피해자가 선생님 연락처를 알고 싶다고 하는데 알려줘도 되겠습니까?” 하더라고요.

유옥수 부대표였죠. 자기도 피해자인데 기사를 보고 놀랐다고, 꼭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옥수 형님은 나보다 더 잘 알지요. 저는 재생원에만 있었고 1년 남짓 있었는데... 거의 감옥 비슷해요. 밤 되면 소변, 대변통을 넣고 밖에서 문을 잠가요. 겨우 방과 식당을 오가는 정도. 그러니 구조를 잘 모르는데 영화속은 비교적 자유롭게 다니기 때문에 거기 계셨던 분들이 구조를 더 잘 알지요. 사실은 나는 이번에 알았지요. 그 터가 사하경찰서 뒤라는 것도 잘 몰랐고 구호병원 그건 알았고요.

옥수 형님 기사도 나가고, 세 번째 박상종... 또 네 명, 다섯 명 줄줄이 기사가 나갔어요. 옥수 형님 집에서 세 명에서 밥 한 그릇 했어요. 사하구청 건너편에서 처음으로 만났는데 보자마자 길거리에서 울었단니까. 밥 먹고 그 자리에서 제안을 했던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피해자를 한번 모아봅시다.”

그 생각으로 만난 건 아니었는데 만나고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신 거죠?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군요.

그렇죠. 11월 달에 국제신문 기사를 복사해서 봉투에 넣고 다니면서 뿌렸죠. 다시 활동가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발로 뛰고 찾아다니고 했죠. 거절도 당하고... 근데 영화속재생원 내용으로 논문을 쓰신 분이 있었는데요. 피해자를 못 찾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나타났으니까 너무 반가워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화위)에서 기자회견이 있는데 증언 발언을 해 달라는 거죠.

그때는 직권조사 들어가기 전이죠?

그렇죠. 저는 신청도 안 했단니까요. 그날 발바닥행동 이정하 선생님을 처음 만났고, 발언을 했고 조사 신청을 했죠. 그때만 해도 신청자가 7명 밖에 없었어요. 일을 하면서도 계속 뇌리에서 이 일이 안 떨어지는 거죠. 계속 통화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나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고, 우연히 창원에도 피해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옥수 형님이랑 화물차 끌고 갔죠. 그 경로로 또 듣게 된 게, ‘당진에 몇 명 피해자 그룹이 있단다, 만나봐라’ 했는데 그분이 최영수 형님이었죠. 그런 식으로 매개가 돼 갖고 연계가 되는 거예요. 결국 피해자를 통해서 또 피해자를 만났는데... 영수 형님이 적극적으로 연결을 시켜줬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음악다방이랄까 이런 데서 일을 했는데 거기가 우리 형님들에게는 안식처였던 거예요. 먹는 건 어떻게든 해결해요. 굶든지, 얻어먹든지. 근데 항상 잠자리가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그 일하는 공간에서 밤이슬을 피할 수 있게 제공해 줬던 거고 그 덕에 서로 다 알고 있는 거였죠.

옥수 형님이라 영수 형님, 이정하 선생님 이런 분들 안 만났으면 혼자 하다가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로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또 하나의 길이 열리고 이 사람을 만나면 또 하나의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정하 선생님이 소개해 줘서 제청란 단장님을 만났죠. 처음부터 정말 많이 도와주셨죠. 제 단장님하고 만날 때마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형제복지원도 그렇고 우리 피해자들도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행정상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되는 건 알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는지 계속 여쭙봤더니 단장님이 최고운 대표님을 소개해 준 거죠.

근데 장례문제가 왜 그렇게 걱정이 되셨던 거예요?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는데 무연고자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처리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항상 얘기하지만, 그 방식은 길에서 죽은 동물들 처리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사람으로서 태어났는데 그렇게 피해자들을 보내기 싫었던 거지요. 조금이라도 예우를 해서 보내드리고 싶었던 마음이었죠. 우리 협의회도 하나의 모임이 아니고 법인이나 비영리단체를 만들고 싶다 한 거죠. 내 나이 60 넘어서 이게 또 하나의 내 새로운 길이구나 싶어요.

아까 제 3의 전환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첫 번째는 원단 대리점을 맡아 먹고 부산에 왔다가 다시 산청에서 지냈던 것이고요. 그리고 산청을 떠나서 부산에 와서 중국집 일을 시작하면서 제 2의 전환기였고 지금은 또 전혀 다른 길이잖아요. 96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비록 한번에 다 까먹기도 했지만 젊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또 제가 40년 했던 구두닦이를 과감히 버리고 했던 게 중국집 일이었고, 완전히 새로운 직업으로 탈바꿈해서 다른 길로 갔으니까 또 다른 세계잖아요. 중국집 일은 구두닦이와는 다른 공동체 생활이었어요. 열댓 명이 한 울타리에서 생활을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같이 어울리는 법도 배우고 1년 3개월 만에 배달팀장이 됐어요. 한 달에 두 번 정도 회식을 했는데 꼭 2차, 3차를 가요. 그리고 나면 꼭 다음 날 일을 못나오는 사람이 생기고, 사장 입장은 “비싼 돈 들여가고 술 사줬드만 사람들은 일을 핑크를 내는구나” 그게 반복이죠. 그래서 제가 “평소 들이는 회식비의 절반만 저에게 줘 보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하고는 회식날은 30분 일찍 마쳐달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주도한 첫날에 초밥집을 갔어요.

왜요?

일단 저녁 식사를 해야 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빈민이고 노동자예요. 초밥 이런 거를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이니까요. “오늘은 식사 위주입니다. 실컷 드세요.” 밥 먹고 커피 한잔 했죠. 그러면서 무단결근에 대해서 규칙을 정했어요. 사정이 있어서 미리 얘기하는 건 상관없지만 갑자기 안 나오는 건 앞으로 패널티를 부과하자고. 대신 만근하면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만근수당을 받아주겠다, 조건을 내걸었죠. 그렇게 하니 능률도 오르고 서로 간에 유대감도 좋아져요. 그전에는 배달이란 게 참 순서가 없거든요. 누구든지 먼저 본 사람이 가야하는건데 그러다 보면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꼭 생기죠. 그런 거에 불만이 많았는데 회식 분위기가 좋고 하니까 서로 간에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사고가 나면서 그 체계를 더 유지하지 못하고 나오게 됐지만 직원들은 “팀장님 있을 때 그때 좋았다”라고 하죠.

일을 하면서도 많이 본 게 서로 개인적인 일로 투닥거리다가 둘 다 그만뒀버리고 그러잖아요. 여기 협의회도 마찬가지였더라도. 서로 간의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가 사무실에 전화를 하고요. 그래서 “사무실에서는 절대 큰 소리를 내지 마라” 원칙을 정했어요. 회의도 있고 다른 방식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저거 예전에 소대장이야. 저거 반장이야. 저 새끼 나 어릴 때 무지하게 두들겨 뺐어” 이런 거 하지말자고 했죠. 그 사람들도 어쨌든 피해자다. 여러분들도 그때 당시에 원장이나 지도장이 “야, 너 내일부터 소대장 해” 안 할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잖아요. 물론 좀 더 의도적으로 감정을 갖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지난 일이다. 우리끼리 잘잘못을 따지지 말자고 정해놨어요.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가지각색의 다 자기 사연들이 있고 색깔들도 있고 그러니까 들어주긴 들어주지만 딱 잘라서 얘기할 수 밖에 없죠. 어느 한 사람만의 억울함이 아니다보니까 서로 아

품을 헤아려주고 용화를 해야한다는 거예요. 이전의 경험들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의견이 분열되지 않도록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제가 형제복지원이나 삼청교육대를 접하지 않은 이유도, 기록에 의하면 77년도 마지막으로 대구희망원에서 나왔더라고요. 다시 안 잡혀오기 위해선 직장을 구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접한 게 주야간 일하는 섬유회사였어요.

첫 직장이었네요.

그렇죠. 청소년 때는 서면, 남포동 오락실에서도 일해봤고 술집 홀에서 일해 본 적은 있어요. 그리고 구두 닦는 일 중에도 단체생활하는 짝새³⁾라는 직업이 있어요. 그런 거도 있었지만 평범한 일로서는 섬유회사가 처음인 게 맞죠.

제가 구두닦이 할 때 서초동이 서울에서의 마지막 생활이었는데, 그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에도 우리 회원이 거기 안에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일로 또 충격도 받았고... 구두닦는 자리는 일종의 자릿세가 있거든요. 사람 일이 참 웃기는 게 자리를 팔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누가 찾아와서 여기를 꼭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차피 팔 마음도 없었으니까 1.5배 정도를 더 부른 거죠. 이건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일의 구역을 사고 파는 건데 사실상 법적인 것도 아니고 업계 안에서만 거래되는 건데도 그 사람이 진짜 돈을 갖고 온 거죠. 그때 가 가지고 못 판다고 얘기를 못하죠. 그렇게 마침 목돈도 생기고 예기치 않게 상황에 휩쓸려 갔죠. 참 희한하더라고.

대표님, 아까 뭐 인생의 황금기 잠깐 얘기하셨는데 언제가 제일 황금기인 것 같아요?

23살에서 30살 그 사이가 제일 좋았던 게, 누군가 제 옆에 있었고요. 섬유회사에서 만났는데 서로 첫 사랑이었죠. 근데 이 사람하고 내하고 만날 수가 없는 사이예요. 주야간 일을 하는데 교대가 안 맞았어요. 일요일 날 기계 청소하며 전체가 모이는 날이 있었는데 내가 맡고 있는 기계에 애가 와서 청소를 하게 된 거예요. 딱 쳐다봤는데 예쁘더라고요. 그때 내 나이 23살이지만 그 사람은 17살이었어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했구나...

그때는 다들 그랬었어요. 일요일 쉬니까 영화나 보러가자 했죠. 1년 정도 알고 지냈는데 자기 집에서 알게 된 거죠. 어느 날 제가 낮에 일하고 있는데 지는 이제 야간 들어가기 전에 나를 부르는 거죠. 그때 생일 축하한다고 시계 선물을 줬는데 당시에 한 달 봉급이 10만 원 남짓했어요. 근데 그 시계가 얼마지 모르겠지만 월급에서 돈이 많이 비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자기 집에서 말이 나왔던 거죠. 한 날 야간 마치고 딱 나오니까 개 아버지가 절 찾아온 거죠. 자기 딸을 만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만나겠다고 했죠. 뽀뽀 맞았고 한참을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자기 집에 데리고 가더라고요. 밥도 차려주고 배짱 좋게 밥도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결국 아버지에게 의해서 원주에 자기 친척집에 가게 되고, 저도 서울에서 한 2년 생활했죠. 그러다가 봄철에 다시 부산에 내려오게 됐고, 경성대 쪽에 구둣방을 차렸습니다. 하고 있을 땐데 우리가 연산동 한동네 살았었거든요. 여름방학이 돼서 골목을 텅텅 내려오는데 골목에서 탁 마주친 거예요. 다시 새로 만났는데 2년 동안 나에 대해서 쓴 노트가 다섯 권인데 그걸 보여 주더라고요. 부모 반대가 심하니까 같이 돈도 없이 울산으로 도망을 갔죠. 울산에 미포조선이나 현대중

3) 닦을 구두를 모아서 구두닦이에게 가져다주는 일만 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공업 이런 데서 방위산업체로 몇 년 근무했던 친구들, 또 직장 생활 시작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얼마씩 모아서 도와줘서 한 몇 년 살림을 차렸죠.

왜 계속 안만나고 헤어지셨어요?

그때는 진짜 철이 없었다니까요. 경제적으로 책임을 못지고 개를 엄청 고생시켰어요. 저는 진득하게 직장생활을 못하고 개 혼자 벌어서 생활하고 이런 상황들이 됐던 거지요. 결혼식도 올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조금 어긋나기 시작해서 결국 헤어지게 됐죠. 6년 만에 다시 찾았는데 이미 결혼을 했더라고요. 자기 식구들하고 같이 걸어가는데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었죠. 그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 그 사람 주민번호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만약에 다시 만날 기회가 있다면, 젊은 날 상처준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싶은 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것에 비하면 너무 못해주고 모질게 대했다는 것... 그래도 제 인생에선 경제적인 것을 떠나서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었던 그때가 전성기였구나...

감동적인 얘기네요. 제가 몇 가지 질문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에 관심사는 뭐 어떤 게 있으세요?

저희 피해자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 피해자분들도 접수를 받아서 연결해 주고 있거든요. 그거랑 두 번째는, 진화위 3기가 출범하는데 어떻게 좀 더 알리고 피해자들을 더 모을 수 있을까 하는 것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피 연세들이 많으시니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하거든요. 피해자들의 장례에 대해서 매 뉴얼을 좀 만들면 좋겠다 싶고, 공영장례는 빈소가 6시간 밖에 안되니까 협의회에서 돈을 좀 더 보태더라도 1일장을 치르겠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할지 이런 게 관심사입니다.

진화위 3기가 좀 중요하겠네요.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2기와는 다르게 진행될 것 같고, 특히 수용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수용시설을 전담하는 파트를 신설한다고 하거든요. 정부가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어차피 과거사를 한번 털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영화숙은 아동 피해자들도 많았지만 그들이 이제는 70대란 말이죠. 형제복지원은 아동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 나이가 꽤 된다는 거죠. 75년에 20대였으면 지금 70대겠죠. 3기가 출범하고 5년이 지나면 그 사이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가능하다면 이번 정부에서 최대한 국가 폭력에 대해서 사과하고 정리를 해야만이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행히 그런 흐름이 지금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센터 회원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공영장례를 통해서 알게 됐지만, 센터의 목적사업은 빈곤층 조직화고 빈곤퇴치 활동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직 잘 몰라요. 저희도 쪽방촌을 겪어봤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쪽방촌 어르신들하고 같이 시에 가서 얘기할 때도 보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그분들이 우리 얘기를 같이 해준다면 또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연을 다 하나씩 안고 있던 말이죠. 서로 얘기라도 듣고, 그걸 통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는 것도 같이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리 : 최고운>

장손 몸에 스민 기득권의 포기, 그 가능성과 불가능성

『장손』, 오정민 감독, 2024



한국 정치지형에서 보수성이 강한 대구지역 한 집안의 이야기를 여름, 가을, 겨울의 풍경 속에서 그려낸 이 영화는 121분이라는 러닝타임이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는 흥미로운 영화였다. 내가 아무런 배경지식이 없이 본 이 영화는 알고 보니 2024년에 개봉해 여러 상을 수상한 이력⁴⁾이 있었다. 평범한 집안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유머러스하게 그려내면서 영화의 주 공간인 집과 마을 풍경 그리고 제사와 장례 장면의 구체적 묘사에서 ‘한국적’ 이미지를 담백하게 담아낸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다.

나는 웬일인지 이 영화를 보면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걸어도 걸어도>를 떠올리게 되었는데, 그것은 두 영화 모두 가족의 파스함과 점점 사라져가는 가족공간으로서의 전통적인 가옥과 ‘촌락’에 대한 향수를 그렸다는 점과 사랑과 안식의 공동체로 공표되는 가족 이면의 갈등과 상처, 오해와 이권 논리를 섬세하게 통찰한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영화는 <걸어도 걸어도>와 달리 가족사를 사회적 역사적 맥락 안에서 배치하여 가족과 개인에 대한 보다 거시적 통찰을 시도하고 있다.

장손인 성진을 중심으로 서사를 그려가는 영화 속 풍경은 마치 우리 집 이야기를 보는 듯 친숙했다. 내 아버지의 고향이 경북 칠곡이고 고모들은 여전히 대구를 중심으로 그 지역에 흩어져 살고 계시기 때문에 경북 사투리와 집안 분위기가 그리고 오래전 할아버지 장례를 떠올리는 장면 등이 특히 그랬다. 경상도 사람들만 구분할 수 있는 경북 사투리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배우들의 연기가 나의 몰입과 친숙함에 일조했다. 단, 극 중 할아버지 역할 배우의 사투리 구사는 조금 실망스러웠다.

작은 두부공장에서 피어나는 뿌연 김이 서린 화면으로 시작하는 이 영화는 두부공장을 운영하는 집안의 기제사 준비를 중심으로 서사가 시작된다. 31도가 넘는 무더위에 마루에서 전을 부치며 에어컨을 틀자고 임신 중인 손녀가 졸라도 할머니는 선풍기 방향만 돌려줄 뿐이고, 방안에서는 고스톱 치는 남자 어른들이 앉아 있다. 서울에서 배우를 하는 장손이 집에 오자 할머니는 얼른 에어컨 틀라고 종용한다. 장손인 성진을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은 아직 두루마기를 입고 다니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큰고모, 작은고모, 고모부, 누나, 매형이다. 제사 준비가 끝나고 가족들은 마을 당산나무 앞에서 가족사진을 찍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웬일인지 그 마을이 다 제삿날이다.

4) 12회 들꽃영화상 신인감독상, 촬영상/ 61회 백상예술대상 with 구찌(영화 신인감독상)/28회 부산국제영화제 (KBS 독립영화상, CGK촬영상, 오로라미이어상)

제사상 앞에서 절하는 흔한 제사 모습과 달리 이 집안의 제사 모습은 사뭇 다르다. 제사상은 문 뒤에 차려져 있고, 문을 닫고 절을 하는 모습이 이색적이고 또 더 격식 있고 전통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격식 있고 전통적으로 보이는 제사는 엄숙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제사상을 향해 엎드려 절한 상태에서 유과 올리는 것은 잊었다고 어머니가 중얼거리고 “먹을 게 많으니 개안타”라고 말하는 할머니, 그리고 고모의 대화는 제사가 엄숙하기만 한, 격식을 위한 격식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나는 읽었다.

삶의 국면마다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방편으로서의 ‘의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로서는 ‘제사’를 가부장제의 모든 문제를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악습으로만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언젠가 청소년기에 대순진리회에 끌려(?)가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당시 5,000원)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 적이 있었다. 그 조출한 제례의 경험은 제사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 그 이전에 제사는 나에게 우리 엄마의 걱정거리인 허례허식이었다. 그러나 제사는 존재했던 자들, 그러나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자들을 정성을 다해 기억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삶의 중요한 의례이기도 하다. 영화를 보면서 제사에 대해, 그 본질과 실행에 대해 이모저모 생각한다.

제사를 올린 후 식사 자리에서 사업 때문에 베트남으로 이민 가게 된 작은 고모네에 대해 할아버지가 빨갱이 나라에 간다고 편잔을 주면서 가족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술에 취한 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게 쌓였던 분노를 표출한다. 아버지의 술주정 행위를 통해 아버지가 비민주화시절 고문당한 경험이 있음을 시사한다. 성진의 아버지는 서울에서 배우를 하는 성진이 가업-두부공장-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성진이 자신과 다른 삶을 살기를 또 바란다. 여름의 제사 에피소드가 끝나면 가을 풍경이 펼쳐지고 성진은 장례식을 위해 고향에 다시 내려온다. 가을이 지나 겨울 장면은 49재다.

영화에는 특별한 사건과 서사는 없다. 그러나 이 영화가 특히 매력적인 것은 대구 경북 집안의 전형성(적어도 나는 그렇게 보았다)이 드러나는 디테일과 일종의 미스터리 범죄 서사의 요소가 가미되었기 때문이다. 영화를 보고 누군가는 손녀가 가부장적 할아버지에게 반말(?)을 하는 것이 인상적으로 남았다고 했는데, 나에게서는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할배’, ‘할매’라고 부르고 반말과 존댓말의 중간쯤을 구사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다. 또 할머니의 죽음 이후 할머니 통장의 행방과 큰 고모의 태도 그리고 치매증상을 보이는 할아버지의 ‘내가 몰래 다 처리해 놔다’는 말은 고모부의 사고에 대한 상상을 발동케 하는데, 가부장제의 유지 존속을 위해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어떤 짓을 저지러 수도 있다는 어떤 섬뜩함을 선사한다. <걸어도 걸어도>에서 온화해 보이는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죽음으로 살려낸 타인에게 겉으로는 다정한 척 하면서 속으로 적의와 분노로 그를 꾸준하게 괴롭히고 있음을 확인할 때 보이는 섬뜩함이 떠오른다.

쿠팡은 ‘핏줄과 밥줄로 엮힌 대가족’이라고 이 영화를 소개하는데, 가부장제 가족을 설명하는 정확한 말인 것 같다. 성진의 집안도 두부공장이라는 밥줄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생계

와 누나 내외의 생계 그리고 큰고모의 생계가 즉 핏줄들의 삶이 얹혀 있다. 핏줄들의 생계가 달린 밥줄에 대한 권리는 장자에게, 상속은 장손에게 결정되어 있는 것이 가부장제다. 그러나 정작 그 밥줄에서 밥을 생산하는 동력과 에너지는 다른 사람에게서 나온다. 정황상 두부공장의 기술원천은 할머니이고, 지금도 맛을 책임지는 사람은 성진의 어머니임에도 권리는 남성 가부장에게 있는 것이 가부장제다. 성진은 두부공장을 안 하겠다고 소리치지만, 정작 ‘누나랑 매형이 내 대신에 신경써 줘서 고맙다’고 말함으로써 누나와 매형은 자신을 대신하여 ‘신경써 주는’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치매증상이 심해지는, 두루마기를 입고 집안의 최고 권력자로 군림하던 할아버지가 두부공장으로 가려던 발길을 돌려 눈발이 휘날리는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돌아나가면서 화면에서 천천히 사라진다. 사라지는 할아버지는 가부장제의 소멸을 분명히 은유하는 듯 보이지만, 가부장 할아버지가 소실된 풍경 속에 누나의 딸 늘봄이 늘 봄처럼 활기차게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분명하게 제시하지는 않는다. 택시에서 할아버지가 까만 비닐봉지에 뽕뽕 싸 모두에게 비밀로 하라고 준 선물을 들여다보는 성진을 통해 감독은 그 선물을 장손인 성진이 받아들일지 그렇지 않을지 우리에게 질문으로 넘겨준다.

성진이 할아버지가 준 선물을 수용할지에 대해 영화를 함께 본 사람들의 의견은 분분했지만, 나는 어쩐지 성진이 할아버지의 선물을 거부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방식으로 가부장적 감각은 꽤 오래 유지될지도 모른다는 어두운 전망을 했다. 성진이라는 한 개인은 장손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며 자랐다. 의식적이라기보다 무의식적으로 성진의 ‘몸’에 장손으로서의 특권이 베여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몸에 스민 감각을 좀체 바꾸기가 힘들다. 더구나 그것이 특권일 경우는 더. 설사 그 특권이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를 착취해서 구성되는 것일지라도 주체는 의식적, 의지적 노력을 통해서만 가까스로 그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할머니는 손글씨로 쓴 요리비법을 손녀에게는 전해주고,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까만 비닐봉지에 뽕뽕 싼 **을 준다. 특정한 사회적 제도는 개인들에게 사랑과 정성의 ‘손글씨 요리비법’과 같은 방식으로 스며든다. 그래서 애써 의식하고 거부하지 않으면 특정한 제도와 세계에 대한 감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어떤 것이든 특권을 가진 자들의 개인적 양심과 인격에 기대하기보다, 배제된 자들의 의식적, 의지적 인식과 거부를 통해 세상을 바꿔나가야 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영화였다. <김남영 회원>



특강 : 마르크스의 '자본', 더 좋은 세상은 어떻게 가능할까

마르크스와 말벌동지의 만남

우리 센터는 2025년 6월 20일 강신준 교수의 특강을 열었다. 사회과학세미나팀은 올 초부터 핀란드, 스웨덴 등 노르딕사회를 소개하는 책 '우리는 미래에 조금 먼저 도착했습니다'를 읽었고 자본주의를 구조적으로 분석한 강신준 교수의 '마르크스 자본,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를 읽었다. 하반기부터는 마르크스주의 경제사를 담고 있는 강신준 교수의 '수취인 자본주의, 마르크스가 보낸 편지'를 읽을 계획이라 저자 특강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그날은 공간달품을 꼭 채울 만큼 많은 사람이 참석했는데 강의 시간이 2시간 반을 훌쩍 넘겼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고 열띤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그런데 어떤 참가자는 강의가 시작되자마자, 고개를 숙여 핸드폰만 만지고 있었다. '저럴 거면 왜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참가자는 강의 마지막 부분, 산별교섭 부분에서 왜, 도대체 왜 산별교섭이 되지 않는 것이냐고 울분에 찬 질문을 던졌다. 강의 내용 하나하나를 핸드폰에 메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질문에 강교수는 민주노총의 관료화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은퇴한 노교수와 말벌동지가 마르크스로 연결되는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특강 내용은 두세 쪽으로 정리될 수 없을 만큼 방대했지만,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본다.

변화의 단서는 어디에?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86,000불로 독일의 69,000불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시간당 임금은 독일이 58불인데 비해 미국은 43불이다. 독일은 연간 노동시간이 1,343시간이지만 미국은 1,799시간이다. 나라 전체로 보면 미국이 독일보다 더 잘살지만, 독일 노동자들은 미국 노동자들보다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은 임금을 받아 간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발전 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선진국이나 외국이라고 하면 미국만 생각하거나 미국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독일과 같은 대륙형 발전모델이나 스칸디나비아반도의 노르딕 발전 모델에 대해서 조금만 들어보면 무슨 그런 나라가 다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랍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연초가 되면 경총이나 상공회의소의 자본가들을 불러 만찬을 하며 새해에도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 애써달라고 부탁하지만 독일의 총리는 노동조합의 간부를 초청한다. 실제로 가치를 만드는 노동을 노동자가 하는 것이기에 당연한 처사이지만 미국형 발전모델에서 보면 이해하기 힘든 광경일 것이다.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 노동자들은 자동차 차체 밑 부분에 부품을 조립할 때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린 불편한 자세로 하지만 독일 자동차 공장은 차체를 옆으로 뒤집어 노동자들이 팔을 허리와 가슴 사이에 둔 편안한 자세로 일한다. 미국과 독일, 혹은 미국과 노르딕, 이와 같은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

일까?

산업혁명 시기에는 미국이나 독일이나 노르딕이나 다 마찬가지로 극심한 절망사회였다. 연간 노동시간은 중세 농노의 1,600시간의 두 배보다 많은 4,000시간으로 늘었고, 노동자의 평균수명은 30세도 되지 않아 군대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해 국방에 위협이 될 정도였다. 미국과 독일의 결정적인 차이는, 미국은 노동운동이 소멸해 가면서 마르크스주의 전통이 단절되었으나 독일과 노르딕에서는 마르크스의 교훈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에서 자본주의를 분석하고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을 내놓았다. 그 해답에 도달한 나라는 아직 없지만 미국, 우리나라에 비하면 해답에 조금 더 가까이 간 나라는 있다. 마르크스의 해답을 실천하려는 나라에서는 스타 정치인을 메시아로 찬양하면서 그가 인민을 구원해 줄 것이라 믿고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대신 스스로 노동자 계급정당을 만들어 구결하는 대신 저항한다. 핀란드는 교육개혁에 20년을 투자했고, 독일 금속노조는 임금체계를 개혁하는 데 50년이 걸렸고 독일 사민당은 150년이 넘었다. 마르크스의 해답은 단기간의 반짝 투쟁으로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교훈,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

우리나라 전체 임금 노동자의 38%는 비정규직이고 이들은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6%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은 고용이 불안하여 쉽게 해고될 수 있고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산업재해의 희생자가 되기 쉽다. 이렇듯 보호의 필요성은 정규직에 비해 훨씬 크지만,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전체 조직률은 13%이지만 비정규직의 조직률은 3%에 불과하다. 만약 노동조합으로 조직된다고 하더라도 소수 세력으로서 교섭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은 있는가?

물론 있다. 그것도 30년 전부터 그 해법을 알고 있었다. 바로 산별교섭⁵⁾이다. 지금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이 기업별 단체협약을 맺어 자신들만 보호하는 우산을 쓰고 있다면, 기업 단위를 벗어나서 산별교섭으로 미조직 노동자들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산별협약이라는 커다란 우산을 써야 한다. 1990년 출범한 전노협은 출범선언문에서 ‘기업별노조 체제를 타파하고 자주적인 산별노조의 전국 중앙조직을 건설하기 위해 총매진할 것이다’라고 천명했다. 전노협을 승계한 민주노총은 세 번째 강령으로 ‘우리는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등 조직역량을 확대 강화하고, 산업별 공동교섭, 공동투쟁 체제를 확립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전체 노동조합운동을 통일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해답을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를 찾아서 건어내고 산별교섭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마르크스의 해답을 실천하는 시작이 될 것이다. <왕승민 노무사>



5) 업종별로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협의한 임금과 근로 조건을 해당 산업 내의 모든 회사에 적용하는 노사 교섭 방식

모두의 1층, 모두의 힘으로!

#모두의1층 #국가배상 #국정과제 #공중이용시설 접근권

1) 오늘의 이야기 : 〈모두의 1층〉

오늘은 〈모두의 1층〉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두의 1층〉은 누구나 편의점, 음식점, 카페와 같은 공중이용시설의 1층을 동등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공중이용시설이 1층에 있어도 턱이나 계단이 있으면 휠체어 이용자, 유아차를 끄는 영유아 동반자,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가 어려운데요. 턱을 없애거나 경사로를 설치해서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2) 현재 상황은? 법령은 바뀌었지만 일상의 변화는 더디다.

편의점과 식당 예로 들면, 2022년 4월 이전까지 바닥면적 기준으로 300제곱미터, 즉 90평이 넘는 편의점만 경사로와 같은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국의 96퍼센트가 넘는 편의점, 식당에는 경사로 설치의무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법령이 바뀌어서 바닥면적 기준이 50제곱미터로 낮아졌는데요. 이 기준은 새로 신축, 증축 되는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휠체어 이용자가 경사로가 없어서 이용하지 못하던 곳은 계속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3) 임팩트 소송의 시작과 작은 성과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유아차를 이용하는 엄마가 원고가 되어 편의점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 기획하여 진행한 일종의 임팩트 소송이었지요. 저희는 편의점을 상대로 승소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기준이 장애인의 접근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편의점 업체에게 접근권을 보장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영점과 가맹점을 나누어서 직영점에 대해서는 경사로와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라고 하고, 만약 여러 사정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도 이동식 경사로를 구비해두거나 외부에 호출벨을 설치해두어서 장애인 등에게 구매보조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했습니다. 가맹점에 대해서는 본사가 장애인 고객을 위한 영업표준을 마련하고,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을 권고하고 점포환경개선을 위한 비용 20퍼센트 이상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편의점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이 되었고, 지금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편의점들이 판결을 따르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4) 끝까지 국가의 책임까지 인정받기

저희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 2분, 그리고 유아차를 이용하는 어머니 1분을 대리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국가를 상대로는 법령상 의무, 즉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기준을 잘못 만든 것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바닥면적 기준이 무효라고 하면서도 국가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작년 12월에 국가가 장애인의 접근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알면서도 24년간 방치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장애인 원고 2분께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5) 10만원의 의미

위자료 10만원을 받는데 소송이 6년 이상 걸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아서 하는 소송이라면 시작도 못했을 소송이지요. 저희와 같은 공익변호사, 로펌 변호사들이 함께 공익소송으로 진행을 해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액수를 떠나 장애인도 편의점, 식당, 카페와 같은 공중이용시설을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명시한 것, 그리고 정부가 법에 따라 만들어야 할 하위 규정을 이상하게 만들어놓고 오랫동안 방치해두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면 국가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공무원들은 계속 부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본인 임기동안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방치시키는 것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 안된다는 경고를 대법원이 한 것이지요.

6) 변화를 위해 계속 필요한 노력

앞으로 장애인등편의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바꿔서 바닥면적 기준을 없애고 법의 원래 취지대로 모든 공중이용시설에 편의시설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영세한 시설주에게는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동네 가게에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들도 잘 만들어져야 하고요. 기업들도 장애인을 고객으로 인식하고 수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시민들도 경사로를 걸어다닐 때 불편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살아가는데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캐리어 끄는 여행자들, 어르신들 모두 편하게 사용하는 것처럼요. 다행히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에 접근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모두가 함께 1층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주언 변호사>

(사진 출처 : 모두의1층.org 홈페이지)



전라도 음식의 재미

부모님이 전라도 분이셔서 늘 전라도 음식에 대한 갈망이 있다. 그러다 보니 경상도에 살면서도 전라도 음식이 그리워 그 지역에 가고픈 마음이 불쑥 일어날 때가 있다. 요즘은 그 편차가 적어졌지만 그래도 그 본래의 지역색이란 게 있다. 특히 음식은 지역색이 지나칠 정도로 분명하다. 어릴 적 서울에 친척이 있어서 자주 올라가다 보면 친척들이 모두 모여서 “으미~ 싱거운 거, 뭘 음식이 이리도 심심하고 재미가 없어부네(재미는 깊은 맛을 뜻함)”라며 투덜거리는 모습을 자주 봤었다. 심지어 서울식 평양냉면 역시 간이 달라서인지 타지역 분들의 호불호가 보통 아니다.

근데 간은 보통 어떤 기준으로 맞추까?

민속연구가이자 국악인인 김준호 선생님의 말씀으론 간은 장작불을 뿜 때 나는 눈물을 찍어서 맛을 본 뒤 맞추는 게 간이란단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짜다고 한다. 이러니 서울 아파트에서 사는 친척과 전라도 현지에서 올라온 친척 사이에 입맛 차이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땀 흘리며 농사 지으며 그 땀을 채울 소금 간에 눈물로 맞추던 역사는 뭔가 애환도 떠오른다.

자, 이제 간 이야기가 끝났으면, 전라도의 음식 간을 찾아서 출발해보자. 그런데 부산 안에도 전라도 음식을 잘 차리는 집이 있다고 한다.

대신동에 있는 “밀양숯불돼지갈비”를 찾았다! 아니 전라도 음식이라더니 왜 밀양이냐고? 그건 29년 전 원래 있던 간판인 밀양돼지국밥에서 국밥 글자 지우고 갈비라고 급하게 적어 만든 게 시초라서 지금까지 그냥 쓰는 중이란단다 (ㅎㅎ)

여기 주인은 목포에서 오신 분이시다. 기본 찬 깔아주는 게 놀랍다. 다른 곳보다 훨씬 푸짐하게 깔아주는데 찬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별미다. 박나물 반찬은 기묘한 감칠맛이 났고, 멸치 반찬은 그야말로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는 게 딱 전라도식이다. 거기다 열무김치는 경상도식 향신료가 아닌 자체의 향이 자연스럽게 올라온다.

반찬 맛에 감동할 즈음 드디어 기다리던 돼지갈비가 나왔다. 아, 이루 표현할 수 없다. 맛에 여러 향이 섞여서 계속 우러나듯 올라온다. 이렇게 깊이 있게 계속 우러나는 음식을 전라도에선 “재미가 있다”라고 표현한다.

오랜만이다. 부산에서 이런 재미가 있는 음식을 맛볼 줄은 몰랐다. 주인 분은 목포에서 올라온 지 딱 40년 되었고, 명절만 되면 친척들을 고깃집에 불러서 꼭 같이 식사를 나누곤 한다. 그리고 휴가 때는 목포에 가서 홍어랑 소고기도 사서 친척들과 즐겁게 휴가를 즐기곤 하신단다. 역시 고향의 맛은 누구에게나 좋은 맛인가 보다.

전라도 음식의 특징은 어떤 이에겐 화려한 양념과 찬으로 기억된다. 하지만 어릴 적 어머니 음식의 특징은 그 식자재 자체의 향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던 기억이다. 특히 “짬지김치”라 불리는 전라도식 무채나물 김치는 양념에 식초나 다른 화려한 양념을 하지 않고, 고춧가루와 간단한 간으로 무나물 자체의 힘을 살려준다. 그 간단한 양념이 먹는 순간 입에 착 감기고 씹을수록 식감에 몰입되고, 다 먹고 나면 마치 중독되듯 다시 젓가락질을 하게 된다. 이런 음식처럼 먹을수록 나는 깊이 있는 맛을 두고 전라도식 표현으로 “게미가 있다”라고 한다. 도심지에서 전라도 음식을 먹으면 지나치게 화려한 식감과 짬맛이 주를 이룰 것 같지만, 사실은 음식 본연의 맛을 중심으로 한없이 깊은 풍미를 주는 게 전라도 음식의 핵심이다. 먹어보면 또 먹고 싶고 계속 생각나는 맛이 궁금하다면 저 멀리 전라도에 갈 것 없이 밀양숯불돼지갈비에 가면 된다. 어르신은 아직도 정정한 얼굴로 손님을 맞이하고 음식 맛에 게미를 더해주시다. <김민수 운영위원>

밀양숯불돼지갈비(부산 서구 망양로 85-1)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소비름 독자퀴즈★

손석주 님이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의 이름은?

010-5135-7957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2025년

1017

빈곤철폐의날

투쟁문화제

10월 17일(금) 저녁 7시
서면 주디스태화 앞

2025년

달품콘서트

X단편영화 상영회

12월 4일(목) 저녁 7시
민주공원 소극장

부산반빈곤센터 2025년 6월 ~ 7월 회계보고

| | | | 6월 | 7월 | |
|------|------|--------|-----------|-----------|-----------|
| 수입 | 이월금 | 이월금 | 839,103 | 166,232 | |
| | 회비 | 현금 | 366,500 | 730,000 | |
| | | CMS | 1,515,585 | 1,466,410 | |
| | 후원금 | 후원금 | 105,000 | 290,000 | |
| | 재정사업 | 재정사업 | 0 | 0 | |
| | 교육사업 | 교육사업 | 0 | 0 | |
| | 기타수입 | 공공요금정산 | 0 | 103364 | |
| | | 기타수입 | 0 | 0 | |
| 공모사업 | 공모사업 | 0 | 0 | | |
| 수입합계 | | | 2,826,188 | 2,756,006 | |
| 지출 | 아름답기 | 임대료 | 사무실임대료 | 300,000 | 300,000 |
| | | 공공요금 | 공공요금 | 49,800 | 65,460 |
| | | 비품비 | 비품비 | 4,250 | 0 |
| | | 소모품비 | 소모품비 | 0 | 19,830 |
| | | 교육비 | 활동가교육비 | 0 | 0 |
| | | 인건비 | 활동비 | 1,900,000 | 1,900,000 |
| | | | 보험료 | 19,000 | 16,000 |
| | | | 상여금 | 0 | 0 |
| | | | 퇴직금적립 | 190,300 | 190,300 |
| | | CMS사용료 | CMS사용료 | 57,886 | 57,517 |
| | 소 계 | | 2,521,236 | 2,549,107 | |
| | 사업비 | 연대사업비 | 분담금등 | 50,000 | 0 |
| | | 선전인쇄비 | 소식지등 | 88,720 | 0 |
| | | 조직화사업비 | 조직화사업비 | 0 | 0 |
| | | 회원사업비 | 회원사업비 | 0 | 0 |
| | | 회의비 | 회의비 | 0 | 0 |
| | | 교육사업비 | 교육사업비 | 0 | 0 |
| | | 재정사업비 | 달달한품앗이 | 0 | 0 |
| | | 출장비 | 출장비 | 0 | 48,900 |
| | | 은행수수료 | 은행수수료 | 0 | 0 |
| | | 예비비 | 예비비 | 0 | 0 |
| | | 공모사업비 | 공모사업비 | 0 | 0 |
| | 소 계 | | 138,720 | 48,900 | |
| 지출합계 | | | 2,659,956 | 2,598,007 | |
| 잔액 | | | 166,232 | 157,999 | |

* 아름다운재단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비는 별도회계로 처리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임기현 활동가에게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부산반빈곤센터 활동일지

[6월]

- 4일 부산울산 1박2일 연대버스(19시, 서면시장)
- 5일 2025 서로배움터 3강> 민중운동으로서의 장애인권운동(19시, 달품)
- 7일 세종호텔 시노래문화제 참석(19시, 세종호텔)
- 10일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자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11시, 부산지방법원 앞)
길위에 정기연습(19시, 달품)
- 11일 서면시장 집회 참석
- 13일 교육위원회 3차 정세토론회(19시, 달품)
- 17일 서로배움실천팀 모임(19시, 달품)
- 18일 차별철폐대행진 발대식(16시, 노동청)
서면시장 집회 참석
- 19일 부마항쟁 역사기행 참관(14시, 민주공원)
부산시민 공영장례 조문단 후속모임
(19시, 달품)
- 20일 2025 서로배움터 4강> 저자특강 with 강신준
(19시, 달품)
- 23일 25-2차 운영위원회(19시, 줌)
- 24일 공영장례 연구팀 회의(16시, 달품)
부산시민 공영장례 조문단 4기 후속모임
(19시, 달품)
- 25일 서면시장 투쟁문화제(19시, 서면시장)
- 28일 내성천제비연구소 제비탐방
(19시, 봉도각 및 1박)

[7월]

- 1일 길위에 정기연습(19시, 달품)
- 2일 서면시장 집회 참석
- 3일 부산시민 공영장례 조문단 양성과정(5기) 1강
(19시,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 4일 사회과학세미나 : 마르크스가 보낸 편지
(19시, 달품)
- 6일 임상철 동지 4주기 추모제(16시, 부산추모공원)
- 8일 편집팀 회의(19시, 함세상H센터)
- 9일 서면시장 집회 참석
- 10일 부산시민 공영장례 조문단 양성과정(5기) 2강
(19시,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 14일 길위에 정기연습(19시, 달품)
- 17일 부산시민 공영장례 조문단 양성과정(5기) 3강
(19시,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 21일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자 공영장례 교육 및
동행상담(임기헌 활동가)(11시, 영화숙 사무실)
- 22일 코딩팀 회의(14시,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부산시민 공영장례 조문단 후속모임(19시, 달품)
- 24일 부산시민 공영장례 조문단 양성과정(5기) 4강
및 수료식(19시,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 25일 사회과학세미나 : 마르크스가 보낸 편지
(19시, 달품)
- 28일 길위에 정기연습(19시, 달품)
- 29일 서로배움실천팀(19시, 달품)
- 30일 공영장례 연구팀 회의(16시, 달품)
서면시장 문화제 참석
- 31일 회원탐방 : 손석주(10시, 달품)
고공농성 사업장 공동투쟁문화제
(18시, 구미유평터칼)



사진 : 이연승

부산반빈곤센터는 2010년 4월 1일 발족, 누구나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조적 빈곤을 철폐하기 위한 반빈곤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 기초생활수급 관련 상담 및 교육 ▲ 불안정노동철폐와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활동
 - ▲ 공영장려 등 민중복지 쟁취 운동 ▲ 인권헌안 연대사업 ▲ 1017빈곤철폐의날 기획사업
 - ▲ 새로운 교육실천을 위한 세미나 ▲ 노래패 길위에 등 소모임을 합니다.
- 함께 하고자 하는 분은 누구나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발행 : 부산반빈곤센터 | 편집위원장 : 김원석 | 편집위원 : 김민수, 메밀, 전소현, 최고운
부산 동구 초량로53 | cafe.daum.net/2010bac | bapc@daum.net | 051)645-0418

부산반빈곤센터 2025 사명·비전

기본적인 삶의 권리

서로 돕는 평등 공동체

주체적인 연대

생동감 넘치는 조직의 힘으로 빈곤과 차별의 벽을 넘는다

구성원이 중심이 되어 함께한다

- 회원이 200명이 된다(75%)
- 매월 1회 회원정기모임을 통해 회원 욕구를 파악한다.
- 모든 회원들이 사명, 비전을 이해하고 실천한다.
- 역할이 분명한 운영위원 10명이 활동하고 있다(50%)
- 운영위원들이 연 4회이상 별도로 마련한 조직강화의 시간을 가진다.

서로 배우고 모두 성장한다

- 교육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월 1회 회원교육을 진행한다.
→ 연 2회 진행중
- 전문성 있는 팀 활동으로 조직을 강화하고 강사를 배출한다.
- 1인가구, 주거빈곤 당사자 조직을 촉진하고 지원한다.

현장에서 힘을 모으고 연결한다

- 공간달품이 부산의 민중의집이 된다.
- 연대를 도모하는 달품콘서트를 개최한다.
- 회원들과 함께 월 1회이상 연대 활동을 한다(100%)
- 우호적인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긴밀하게 연대한다.
- 빈곤과 차별을 강화하는 법제도 제개정 운동을 한다.

일정안내

솔밭산 추석맞이 모여참배

9월 20일(토) 오전 9시, 솔밭산열사모역(하북면 삼덕로288)

센터 가을소풍

9월 21일(일) 이기대 무장애길☆

구체적인 시간과 이동편 및 집결 장소는 추후공지!

회 원 가 입

bit.ly/bapc2017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bapc0401

후 원 계 좌

부산은행 101-2043-6389-04 (부산반빈곤센터)